

소비자를 가족처럼 생각해 계속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 생산해 주길...



황 명 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우수목장 선정위원)

깨끗한 목장 가꾸기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지 벌써 9년, 감회가 참 많이 새롭습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우수 목장 선정위원을 비롯, 담당직원들께서 불철주야 열심히 선정활동에 임해주시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활동에 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심사를 위한 목장 방문시 목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개선사항을 아낌없이 알려주시는 위원들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목장’이라는 제목처럼 “과연 목장이 정말 깨끗하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그림 같아 보일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지만, 위원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희열을 느낄 수 있었기에, 저 또한 단순한 참석의 대상이 아닌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애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소비자운동의 덕목 중에 제일 빼놓을 수 없는 ‘소비자 8대 권리(안전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조직 활동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갈



권리)’와 ‘5대 책임(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인식할 책임, 행동할 책임, 참여할 책임)’의 정신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수목장 선정위원회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방문했던 우리나라 목장이 많은데, 그중 목장주가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심사를 의뢰한 곳도 있었습니다. 심사항목으로 목장의 젖소가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지, 축사시설, 청소, 진입로 미화, 착유실 청소, 배설물 분뇨처리 기술, 소가 살수 있는 환경, 해충 오염 발생, 착유 세정 처리, 환기 시설, 통풍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사료 공급은 위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등도 고려했습니다. 자동화·체계화된 일부 목장은 착유도 로봇이 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소비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목장도 있었으며(치즈 만들기, 과자 만들기 등), 몇 년 전보다 깨끗하게 개선된 곳 중에는 체험 목장으로 탈바꿈한 곳도 있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목장들을 방문했을 때에는, 목장주께 ‘깨끗한 목장 가꾸기’라고 하니 방문하기 몇 시간 전 부랴부랴 화단에 꽃을 심는 등 외양만 가꾸고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목장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식도 바뀌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많이 달라져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신 곳도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의식을 갖고 양심적으로 소비자를 대하며 목장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교육도 받는 목장주가 있는 반면, 영리만 추구하여 시간, 돈, 인력을 핑계로 축사환경 개선은 외면하고 목장 외부의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신 목장주도 간혹 있었습니다.

젖소가 생산하는 우유는 안전한 먹거리로 기초식품에 해당되며 우리 식탁에는 늘 어린이,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물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목장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에게서는 소비자를 본인의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보상이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 염두에 두지 말고 지역과 소비자를 위해 낙농가들의 협심으로 진취적 발전을 이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10년 뒤의 꿈은, 역사를 바꾸듯이 낙농이 보다 나은 깨끗한 환경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소비자를 위한 목장 운영을 한 낙농인에게는 큰상이 주어지길 바라며 협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